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해 먹고 살아?”

우리들의 불투명한 미래

강민지 수습기자 kmjee7074@naver.com

‘넌 꿈이 뭐야?’

해당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국 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했다는 응답은 33.9%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37.6%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알고 불안해하며 좌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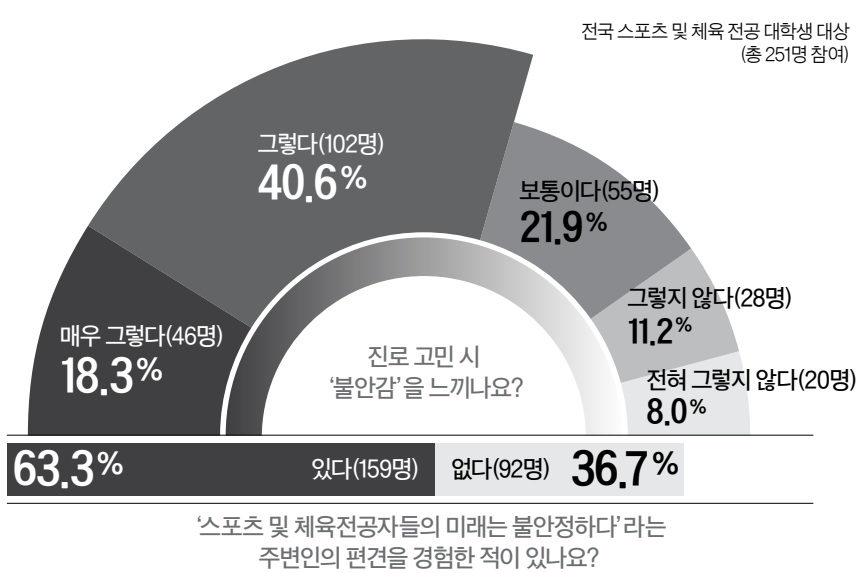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해 먹고 살아?’라는 말 들어보았는가? 특히, 스포츠 전공자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다. 실제로도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포츠’라는 전공을 살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말 스포츠계 진로는 불투명한가? 기사를 통해 스포츠 및 체육 전공의 불투명한 미래를 조사하고 전공자가 갈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전국 체대생, 편견 속 불안정한 진로

한국체육대학교보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스포츠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설문은 전국 스포츠 및 체육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총 251명이 응답했다.

스포츠 및 체육전공자들의 불투명한 미래'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대학 졸업 후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진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153개(‘매우 그렇다’ 77개, ‘그렇다’ 76개)로 61.0%를 차지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47개(‘그렇지 않다’ 39개, ‘전혀 그렇지 않다’ 8개)로 18.7%였다(‘보통이다’ 21.1%). 명확한 진로가 있다고 이들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가? 아니다. 총 148명(58.9%)이 ‘진로 고민 시 불안감을 느낀다(매우 그렇다 46명, 그렇다 102명)’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 및 체육전공자들의 미래는 불안정하다’라는 주변인의 편견을 경험한 적 있는가에 ‘있다’라는 응답은 159개로

63.3%를 차지했다. “스포츠 전공해서 뭐 할 거냐.,” “졸업하면 트레이너 해?,” “체육 교사 아니면 할 거 없지 않아?” 등 많은 사람이 스포츠 전공자는 직업 선택이 한정적이라는 편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체대 진학에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직업 수명이 짧다.,” “임금이 적다.,” “비정규직이다.,” “금방 대체할 수 있는 직군이다.”라며 스포츠 관련 직종은 불안정하다고 일반화한다. 이 외에도 “공부 못하면 체대 간다.,” “여자가 체육 해서 뭐냐.,” “1등 아니면 성공 못 한다.”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산업과의 교류로 발전하는 스포츠

근래에는 없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체육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정했을 때, 졸업 후 취직이나 진로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활용한 진로는 몇몇 큰 기업 취업으로 귀결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 융화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스포츠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와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이경진(노인체육복지 18)

편견이 원동력으로

저는 체육 관련 공기업 또는 협회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사기업에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친척으로부터 “간혹학과나 경영학부를 선택하는 게 취업할 때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어쩌면 편견은 제 원동력이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체육 관련 공모전이나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경북대학교 임유정(체육 21)

전망이 좋지 않다는 편견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제가 체대 입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말리셨습니다. 전망이 좋지 않고 뭐 먹고 살지 걱정된다고요. 또, 아는 형은 체대 나오면 헬스 트레이너밖에 안 하는데 그건 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경원(생활체육 23)

준비된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저는 ‘트레이너’가 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피키퍼셔널짐’이라는 휘트니스 센터 막내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부산 보건대와 신라대학교를 다니며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 스펙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피키퍼셔널짐 지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스포츠 분야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라대학교 예필용(체육 20)

예체능계 취업난, 진위를 가리다

2022년 12월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54만 9,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자, 취업 불가능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47만 3,342명이었으며, 취업자는 32만 685명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취업률은 67.7%로 전년 대비 2.6%p 증가(2020년 전체 취업률 65.1%)한 수치다. 하지만, 계열별 취업률에서 체육을 포함한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의약계열(82.1%), 공학계열(69.9%)은

전체 취업률(67.7%)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예체능계열(66.6%), 자연계열(65.0%), 사회계열(63.9%), 교육계열(63.0%), 인문계열(58.2%)은 전체 취업률보다 낮다.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자의 학과별 취업률은 어떨까? 한국체육대학교보는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을 통해 2021학년도 학과별 취업률을 분석했다.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72.4%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 67.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학과별 취업률은 편차가 크다. 생활무용학과(現 공연예술학과, 88.5%), 체육학과(87.8%), 레저스포츠학과(現 스포츠산업학과, 72.2%), 사회체육학과(69.1%)는 전체 취업률보다 높지만, 운동건강관리학과(64.8%), 노인체육복지학과(61.8%),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58.1%), 태권도학과(53.8%), 특수체육교육과(51.4%)는 낮다. 이와 관련해 이신열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21년 학과별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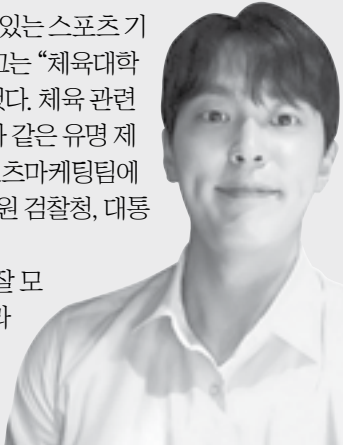


[동문 인터뷰] “체육전공자라고 체육만 해야 하나요?”

이신열 동문(사회체육 12)은 현재 새마을금고 대출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동시에 ‘두드림’이라는 한국체육대학교 네트워크를 2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주고 매일 아침 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대학 시절 “단순히 체육전공자거나 체육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체육대학교만의 네트워크가 없어 진로에 대한 불안이 컸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전공자의 진로에 대해 그는 “스포츠 전공 취업의 문은 매우 작다.”라며 “1년에 한두 번 있는 스포츠 기관 채용을 목 빠지게 준비해도 채용인원도 한두 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는 “체육대학도 문과라는 시각으로 시야를 넓혔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동기, 선배, 후배들도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녹십자, 화이자 같은 유명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주 먹는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대한항공 승무원, 기장, 금융업 관련 증권사, 5대 대기업 해외영업팀, 법원 검찰청, 대통령 경호원 등 정말 다양하다.”라며 체육계 외에도 많은 길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 그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종합인력개발원 시스템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학교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학내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제공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선배들이 현직 선배를 연결해 주고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겠다.”라며 한국체육대학교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을 남겼다.



이신열 동문(사회체육 12)

스포츠 산업에서 살아남기

한국체육대학교에서 8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졸업 후 스포츠 및 체육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가질 것인가’라는 물음에 88.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라서’, ‘전공 경험을 살리는 것이

나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0개(그렇지 않다 45개, 전혀 그렇지 않다 5개)로 19.9%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123개(‘매우 그렇다’ 27개, ‘그렇다’ 96개)로 49.0%를 차지했다. 현재 스포츠 분야 일자리 현황은 어떠한가? 스포츠 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얻고자 인재개발원장 조옥상 교수와 직접 만났다.

[교수 인터뷰]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세요.”

4월 19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조옥상 교수는 11년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자신이 ‘한국체대 94학번’으로 “직책을 맡기 전부터 졸업생의 취업과 향후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 전공자에 대한 편견의 원인이 ‘아직 체육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이 체육 전공자들의 진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직종이 정말 많다.”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물론 그곳에도 체육인이 아닌 타 전공생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그들이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한편,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에 대해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취업을 모두 포함한 취업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업생의 직업이 다양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육학과는 졸업과 동시에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든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체육 교사를 하거나 영역을 완전히 바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외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생활체육대학 학과에 대해서는 “무용학과나 태권도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로와 관련해 자기들만의 영역은 없는 것 같다.”라며 “최근 4, 5년 동안에는 공무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또, 스포츠 분야 일자리에 대해 “특히 사회체육지도자나 전문체육지도자 등 지도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1년마다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스포츠 전망은 밝을 것’이라 의견을 표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새로운 분야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며 양궁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활과 프로스펙스, 프로윌드컵, 산악 용품 등 국산 메이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용품 산업, 스포츠마케팅 산업은 상당히 발전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지 못해 인재개발원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학생들이 몰랐던 것 같다.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이 국내, 국외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곳에 지원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또 입사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를 해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옥상 인재개발원장(체육학과 교수)